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제24호](2016. 6/7)

서울시 용산
구 청파동
3가 119-2
진여원홍보
팀

종정스님(苑主),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학술대회에 격려사

종정스님(원주)은 2016년 7월 5일 부산 삼광사에서 개최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아 니시카와 부교무장을 통해 격려사를 주셨다. 종정스님은 신노엔의 근본사상인 '제섭'·'이타'가 원효대사의 화쟁사상과 상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융화 섭수를 추구하는 신노엔의 '신노'의 빛이 이번 학술대회에서 진리를 비추는 빛이 되어 불교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셨다(주요내용은 뒷면에 게재)

니시카와 부교무장,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 예방, 양국 불교 발전 방안 환담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학술대회에 참석차 내한한 총본부 니시카와 부교무장은 7월 6일 범어사를 참배하고 주지 경선스님을 예방하여 한일 불교 발전 및 우호 증진을 위해 환담을 나누었다. 두 스님은 한일 양국의 불교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양국 불교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범어사 참배에는 사토 한국담당, 정경숙·김영준·노정원 사무국원이 동반했다.



<범어사 경선스님을 예방한 니시카와 부교무장>



"신노엔의 세계화"를 주제로 이용철 교수가 주제 발표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7월 5일 천태종 부산 삼광사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신노엔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이용철 교수(한림대)

및 조현철 명예교수(한양대)가 발표와 토론을 각각 행했다. 이용철 교수는 신노엔의 세계화가 ①교리(이타실천, 섬수, 원천평등), ②종교활동(세가지 실천, 접심수행, 호마, 회향), ③사회공헌활동 등의 세 가지 큰 기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라는 대주제하에 ‘한국불교의 세계화—안국선원을 중심으로—’, ‘일본불교의 세계화—신노엔을 중심으로—’, ‘중국불교의 세계화—진푸티 약사선원을 중심으로—’가 주요테마로 발표되었다.



<교수불자연합회 학술대회에 발표와 토론을 한 신노엔의 이용철, 조현철 교수>

이날 종정스님의 격려사가 이루어졌고, 삼광사 주지 무비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도 축사를 건넸다. 이번 대회에는 교수불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원 70여명 부산정사 방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학술대회가 끝난 7월 6일 학술대회 참석자 약 70여명이

부산정사를 방문하였다. 교수불자들은 BTN이 제작한 “행복의 길·신노엔”을 배청하고, 신노엔에 대한 궁금사항을 질의응답 했다. 질의응답에는 총본부의 니시카와 부교무장이 직접 대응해 주었다.



<부산정사를 방문한 교수불자들>



<교수불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니시카와 부교무장>

니시카와 부교무장, 부산정사 방문

총본부 니시카와 부교무장이 교수불자들의 학술대회 참석차 7월 4일 부산정사를 방문하셨다. 이 날 오후 6시경에 도착한 니시카와 부교무장은 부산지역 교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상구보리에 응해 주었다.

종정스님(신노엔 苑主), 2016년 7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학술대회 격려사

이번에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 국제포럼이 부산의 천태종 삼광사에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경축합니다.

신노엔은 여래상주와 실유불성을 설하는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을 소의의 경전으로 하고, 『금강정경(金剛頂經)』

『대일경(大日經)』의 전등밀교 법류를 이어받아, 출가와 재가의 틀을 넘어 모든 종교의 근원, 궁극의 진리인 ‘진여(眞如)’를 이타 실천도로 추구하면서 지심으로 익히고 수행 정진하는 교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열반교학에서 특필할 만한 『열반종요(涅槃宗要)』의 저술자이며 화쟁(和諍)사상을 확립한 원효대사(7세기)에게 친근감과 존경심을 느낍니다. 또한 진언밀교의 조사인 홍법대사 쿠카이(空海)가 교학형성의 중추로 했던 『석마가연론(釋摩訶衍論)』이 신라시대에 편찬된 서적인 점에서 늘 한국불교의 깊고 풍부한 오랜 역사에 지대한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1936년 신노엔은 저의 사부(師父)이신 개조 이토신조(伊藤眞乘)와 아내인 영조(靈祖) 이토토모지(伊藤友司)에 의해 개창되었습니다. 개조는 일자상전(一子相傳)의 역학을 이어받아 돈독한 선(禪) 불교도셨던 부친의 인도로 어린 시절부터 역경, 오행사상 등 깊고 오묘한 동양철학에 통달했고 또 선종사원에서 불법을 접하여 참선을 거듭했습니다. 아울러 모친이 신앙하고 있던 교파신도(敎派神道)를 가까이했고 독실한 기독교인 이었던 누나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 교리 또한 연찬하

여, 당시 번각(翻刻)이 성했던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서양사상을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성장해서는 당시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달리는 항공 엔지니어가 되어 이과계의 기술과 제반 지식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영조도 조모와 백모가 법화경의 실천자이었던 까닭에 가업에 종사하는 한편 영능을 통해 많은 신봉자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두 분의 청년기의 광범위한 종교체험과 학식은 한마디로 보편적 진리인 ‘진여’를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윽고 개조는 역학을 배우고 싶다는 한 진언종(眞言宗) 승려의 의뢰를 계기로 밀교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진언밀교의 장대한 우주관, 신구의(身口意)의 삼밀유가(三密瑜伽)와 만다라의 사상을 통해 ‘진여’에 이르기 위한 체계적인 불도수행을 행한 신조는 앞서 불가사의한 인연으로 대일여래의 교령륜신(敎令輪身)인 부동명왕상을 권청했던 까닭에 동지라고도 할 수 있는 토모지와 풍족했던 생활을 모두 버리고 종교 한길로 나갔습니다.

개조는 나아가 당시 진언종 다이교파(醍醐派) 주지로부터 직접 전수를 받게되어 혜인(惠印)과 금태양부(金胎兩部)의 대법을 상승(相承)하고 관정(灌頂)을 받아 대아사리(大阿闍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종파에서 약속된 절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선택하지 않고 항상 고난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출가를 기반으로 한 재가교단 「신노엔」을 설립,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슬픔과 수많은 수난을 극복하여 열반경의 진실의 와 해후, 영조와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약 5m나 되는 대열반상을 제작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비장(秘藏)하는 불성의 개현, 결연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상주의 부처님을 새겨가기 위한 성업이었습니다(그 후에도 개조는 불상과 부조(浮彫), 각자(刻字) 등의 방대한 작품을 남겼으며, 일본의 「쇼와(昭和) 시대의 불사(佛師)」로 불리었습니다). 일체중생의 마음에 부처를 새긴다, 이는 고통과 슬픔에 잠긴 마음에 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입교에 즈음하여 신비스럽게 영조에게 나타난 「현(顯)에서 밀(密)로 들어가 바르게 수행하고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바르게 길을 관철하라」는 말을 ‘진여’의 등불로 여겨, 저희들은 개조와 영조의 천화 후에도 한층 더 대승이타의 실천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조와 영조는 『열반경』을 “팔대강이 대해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제섭(濟攝)의 가르침”으로 파악하고, 이 경전을 애타(愛他)의 실천으로 읽음으로써 상호이해와 대화, 평화건설을 향한 크나큰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원효대사의 『열반종요』의 ‘화백가이쟁(和百家異諍)’ 즉 여러 논쟁을 화해시켜 서로를 향상시킨다는 경전 이해와 동질이며, 지향하는 바와 방향이 같습니다. 서로의 역할과 뜻을 깊이 이해하고, 어느 한편을 버리는 일 없이 보다

고차원의 진리를 추구하는 일, 즉 모든 것을 포용하고 융화 섭수하는 경지에서 대립이나 모순이 지양되어 가는 것이 열반의 ‘진여’입니다. 그렇다고 개성이 없는 하나의 색으로 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가진 고유의 가치와 선한 가능성이 근원에서부터 다채롭고 풍요롭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번 학술회의, 심포지엄 또한 진리를 비추는 한줄기 빛이 뿔어져서로 ‘진여’를 만들어내어 불교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노엔은 현재 동경대학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다이쇼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경의 저본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해인사 고려대장경의 재조본(13세기)입니다. 한때 평화의 위기에 직면하여, 신앙심 깊은 옛 성인들께서 목숨을 걸고 후세를 위해 남기신 인류의 보물이, 지금의 IT 기술로 만인의 것으로 열리려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들의 진지한 노력 또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 진리 ‘진여’의 현성(現成)으로 이어지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한국 불교계와 학계의 여러 선생님들께 앞으로도 후의를 부탁드리며, 보다 진전된 연구와 교풍의 발전 및 여러분들의 다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신노엔의 축사를 드립니다.

나무 진여일여 대반열반경!